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040호 (음력 10월 19일)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100시간 멈춤' 광주 방역수칙 시행…유흥시설·집단운동 금지

광주시, 오늘부터 6일까지 나흘 간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식당은 오후 9시 이후·카페 영업시간 포장·배달만 가능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멈추지 않음에 따라 '유흥시설 운영 중단·10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다.

2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 100시간 멈춤 10대 방역 수칙'을 시행한다.

우선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100인 이상 집합 행사, 집단운동(GX류), 아파트 내 헬스장,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된다.

단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됐다.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포함 내부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수 없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활동도 전면 금지되며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 면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도 금지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실내와 실외 모두 적용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양상은 특정 공간이 아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만큼 광주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2대 도입 운영…내년 10대 배치

중마동 1000·1001번 노선

광양시는 3일부터 중마동 지역 순환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6대 가운데 2대를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로 교체해 운행한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운행은 전남에서 나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대중교통의 전기버스 도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버스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요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4kwh의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212km를 운행할 수 있다. 기존 1000번과 1001번 노선에 투입된다.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은 국비, 도비, 시비와 운수회사 자부담을 통해 운영되며, 시는 내년까지 총 10대를 시내버스 노선 운행에 배치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주·전남교육청, 오늘 안전 수능 총력

총 3만586명 응시…수험생 밤 10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가능

광주·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3일 광주는 41개 시험장 898개 시험실, 전남은 56개 시험장 811개의 시험실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광주의 경우 일반 시험실은 38개교에 696개가 설치됐다. 일반 시험장 내 유증상 수험생 시험실은 각각 5개 씩이다. 별도 시험장은 2개교에 10개 시험실이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빛고을전남대병원 내 2개(8인)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전남은 무증상 수험생 시험실이 642개, 유증상 수험생 시험실이 138개, 별도 시험장 시험실 21개, 병원 시험장 시험실이 10개다. 병원 시험장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목포의료원이다.

광주·전남 지역 응시자(접수 현황)는 총 3만586명이다.

이중 광주 지역 재학생은 지난해 대비 2172명 감소한 1만2433명(75.9%), 졸업생은 46명 감소한 3458명(21.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33명 증가한 487명(3.0%)으로 집계됐다. 성별 분포는 남자 8436명(51.5%), 여자 7942명(48.5%)으로 남자가 494명 많았다.

전남에서는 총 1만4208명이 접수, 2020학년도 대비 1785명(11.2%)이 줄었다. 자격별로는 재학생이 1746명 감소한 1만2012명(84.5%), 졸업생은 61명 감소한 1896명(13.3%),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0명이 증가한 300명(2.1%)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전년도 대비 833명 감소한 7046명(49.6%), 여학생은 952명 감소한 7162명(50.4%)이 접수했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시험장에 도착한 즉시 손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해야 한다. 무증상일 경우 일반 시험실로 곧바로 입실한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이 지속하거나 심한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일 경우 별도 시험실로 입실한다.

시험장 칸막이는 하단으로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으며,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수험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험생들은 이날 오후 10시까지 각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응시 기회는 100% 보장된다. 검사 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된 수험생들은 보건소에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교육청에 신고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 수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조인호 기자

옛 백운고가 차선 페인트 작업

2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동 옛 백운고가 철거 현장 도로에서 건설업체 직원들이 노면 안내 페인트 작업을 하고있다.